

# 상식을 부수고 자신을 ‘回光返照’ 하라

회광반조: 빛을 돌이켜 정신을 비추다

## 불교로 읽는 古典 - ① 장자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는데 그 이름은 곤(鯁)이다. 곤의 크기는 몇 천리나 되는지 모른다. 그 물고기가 변하여 새가 되는데 그 이름은 봉(鳳)이다. 봉의 크기도 몇 천리나 되는지 모른다.”

《장자(莊子)》의 첫 편인 ‘소요유(逍遙遊)’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한다.

이 봉새는 구만리를 날아서 남쪽 바다로 옮겨간다. 그것을 보고 뱀새가 비웃는다. “난 여기서 저기까지 날아가기도 힘든데 무슨 저런...” 여기서 “대봉의 뜻을 뱀새가 어찌 알랴”하는 말이 나온다.

이 대목을 읽고 “에이, 무슨 황당한 이야기야!” 하고 책을 덮는 사람은 《장자》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고 무언가 끌려서 《장자》를 계속 읽어 가는 사람은 분명 이 소시민적인 일상을 넘어서려는, 개미 쳇바퀴 도는 듯한 이 윤회의 세계를 넘어서려는 꿈을 지닌 사람이라.

《장자》를 읽고자 하는 사람은 무언가 현실에 안주하는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사람에게 《장자》는 목마른 사람에게 시원한 물처럼 시원하게 막힌 속을 띄워주는 느낌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그 느낌에 너무 빠져서는 안된다. “아! 《장자》는 진정 뱀새의 세계를 뛰어 넘는 대봉의 세계를 가르쳐 주는 구나. 나는 《장자》에서 대봉의 길을 발견했노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라면 《장자》를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닐지 모른다. 무슨 말인가? 장자가 대봉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말인가? 그렇다. 장자의 철학이 그렇게 간단히 대봉의 세계를 찬양한 것으로 끝난다면 너무 싱거운 일이다. 단지 너무 싱거운 뿐 아니라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

우리가 ‘더 크게 더 높게’를 외치는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고,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면 어찌될 것인가? 우리의 일상적인 나날은 정말 뱀새의 삶처럼 가치 없는 것일까? 언제나 일등만이 대접받고 나머지는 전부 ‘루저’라 불리는, 수직으로 줄 세우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불교가 좋은 업을 지어 보다 월등한 신분과 지위, 재산을 가지기 위한 종교라고 생각해 보자. 거기에 무슨 해탈이 있는가? 진정한 대자유가 있는가? 해탈이란 신분과 빈부 지식을 넘어서서 누구에게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백정이 도살의 칼을 놓은 그 순간에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가르침은 바로 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대봉만을 높이고 뱀새를 천하게 보는 관점에 빠지면 우리는 “더 크게, 더 높게, 더 강하게”를 외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위태로운 길을 달려가게 될 것이다. 물론 《장자》에는 이러한 데로 나가지 않고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는 반전이 있다. ‘학 다리를 잘라오

리 다리에 붙이지 말라’, 각각 자신의 자연에 충실한 것이 각각의 행복이다.

대봉이 그렇게 구만리를 날고 싶어서 날겠는가? 그만큼 멀리 날지 않으면 자기의 큰 몸을 담을 바다를 찾을 길이 없어서이다. 또 뱀새처럼 아무데서나 풀썩 날아오를 수가 있는가? 그렇게 보면 크기 때문에 겪는 부자유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장자가 뱀새가 좋다고 한 것일까? 물론 그것은 더더욱 아니다. 대봉이 장자의 이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장자의 세계로 들어오는 관문 역할은 한다고 한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추구가 장자의 세계에 동참하는 동기는 된다는 점에서, 장자가 대봉을 낮추고 뱀새를 높일 리는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럼 정답은 뭐야? 뭐가 그리 복잡해?” 이렇게 묻는다면, 우선은 그렇게 쉽게 정답 찾으려는 태도부터 버리는 것이 또 장자의 세계에 동참하는 조건이라고, 역설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장자’는 사람들이 각각 제 입장에 서서 자기의 주장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철저히 쳐부수려 했던 위인이었기 때문이다.

장자는 이런 식으로 말한다. 인간의 미녀가 물고기 눈에도 미녀로 보일까? 물고기는 그런 여자가 가까이 가면 물속 깊이 숨어버린다. 또 인간은 습한데서 자면 허리에 병이 나지만 미꾸라지도 그러하냐?

인간과 동물 각각이 각각의 입장에서 제일 편한 것

봉새도 뱀새도 제 입장이 있어  
자신의 주장만 강요는 안돼  
다양한 비유로 새 안목 열어

《장자》, 中 선불교에 영향까지  
원효 스님 ‘화쟁’ 제물론과 유사

이 있었어, 사람 사람도 각각의 입장에서 각각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면 서로의 불행일 뿐이다. 또 제가 있는 위치에서 보는 것만 옳다고 고집하는 것도 정말 우스운 일이다.

예를 들어 살고 죽음의 문제를 보자.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살아있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죽는 것은 끔찍히 싫어한다. 그런데 장자는 이렇게 묻는다. 죽음의 세계가 어떤지 알거나 하고 그렇게 삶을 고집하느냐고, 죽음의 세계가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세계일 수도 있지 않냐고...

이렇게 《장자》에는 우리의 상식을 철저히 부수고 새로운 안목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활발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다. 직접 읽어보지 않고 개론서를 통하여, 아니면 논문을 읽는 것으로 《장자》를 알려 한다는 것은 《장자》로부터 오히려 멀어지는 것이 되는 책, 그것이 바로 《장자》이다.

그렇기에 여기서도 《장자》의 생생한 이야기를 단편적으로나마 전하여 《장자》읽기에 동참을 유도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다른 후회를 하나 들어



장자의 모습을 예상하고 그린 초상화(사진 위)와 탄허 스님이 쓴 《장자》 어구 8쪽 병풍(사진 아래, 제공=탄허 스님 홈페이지). 도교 철학의 한 축인 《장자》는 중국과 한국불교에 영향을 미쳤다. 상식을 넘어 새로운 안목을 주는 《장자》는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날카로운 성찰을 제시한다.

보기로 하자.

장석이라는 배어난 목수가 있었다. 어느날 제자와 함께 여행하다 임청나개 토지신 사당 나무인 느티나무를 보았다. 나무 그늘 밑에서 수천마리의 소가 머물 수 있고 백 아름이나 되는 듯 싶었다. 《중략》구경하는 사람 시장처럼 모였는데 장석은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다. 제자는 너무나 감탄하여 그 나무를 구경하는가 장석을 종중집으로 따라가 “목수가 어떻게 저런 나무를 그냥 지나치십니까?”하고 물었다. 장석은 “그건 쓸데없는 나무(散木)다”라고 말하였다.

왜 쓸데없는 나무라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쓸데가 있었으면 벌써 베어져서 그렇게 온전하게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쓸모 없는 것은 큰 쓸모(無用之大用)’이라는 말이 나온다.

무언가 쓸모있게 되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삶을 한꺼번에 뒤집는, 큰 스승의 방이나 할과 같은 말이 아닌가? 나는 과연 나 자신의 삶 자체를 훌륭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의 삶을 어떤 것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도구와 수단이 되는 것에 급급하여 정작 나 자신의 삶

을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돌아보게 되면 정말로 너무나 슬픈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잊고, 나 자신을 도구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

요즘을 한참 주가가 오르고 있는 듯한 인문학을 더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동령까지 인문학을 강조하면서, 여기저기서 인문학 강좌가 열리고, 인문학이 매우 쓸모가 있다는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다. 어떤 학문과 연계하면 어떤 효용이 나온다는 식을 이야기 가 가장 많다. 그런데 과연 인문학을 그렇게 부각시키는 것이 옳은 일일까?

인문학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 자체를 훌륭하게 살도록 만드는 학문이다. 그러하기에 자질한 쓸모를 말할 수 있는 학문은 아니다.

다른 비유로 말하자면 바로 쓸모가 드러나고 보이는 학문을 수도꼭지라 한다면, 인문학은 수원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수원지가 갑자기 수도꼭지와 같은 쓸모를 보일 수 있다 나산다면 당장이나 한 일이겠는가? 수원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하여 무시하고 지나온 세월이 너무도 길어, 그렇게 무시당한 설움에 겨

워서 당장의 쓸모를 주장하고 나서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당당하게 ‘쓸모 없음의 큰 쓸모’를 내세워야 한다. 또한 세상도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근원적 학문인 인문학의 위상을 바르게 인식하고, 당장의 쓸모를 인문학에 요구함으로써 인문학이 겉보기의 화려함 속에 망가지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쓸모없음’과 ‘큰 쓸모’라는 모순적인 말을 묶어 놓으니 이렇게 우리의 삶과 세계를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활구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장자》의 관점과 논리는 불교와 매우 친근성이 있다. 실제로 불교의 역사에 《장자》는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

중국에서 불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익숙하지 않은 불교의 개념을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매개로 이해하려 했던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중국적인 불교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선불교는 《장자》의 사상을 토양으로 하여 일어난 것이라고도 말해진다. 특히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면 통발이 어떤 것인가는 상관없고, 뜻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전달 수단인 말에 구애받을 필요 없다는 《장자》의 사상은 불립문자(不立文字), 이심전심(以心傳心)을 내세우는 선종 사상의 뿌리를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선불교 뿐만이 아니다. 한국 불교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원효 스님의 사상에 장자의 사상이 큰 영향을 끼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원효 스님의 대표적인 사상은 불교안의 여러 다름을 화해시키려 한 화쟁 사상이다. 이 화쟁 사상의 논리와 《장자》의 제물론(物論)의 논리는 매우 유사하다. 이전의 교판(敎判)은 수직적으로 여러 경전의 가르침을 순위매김함으로써 불교를 통일적으로 설명하려 한다. 원효 스님의 시도는 모든 가르침을 수평적으로 놓고, 그것들이 각각 부처님을 가르침이라는 ‘한 맛(一味)’으로 귀일시킨다. 그리고 이렇게 보는 시각과 방식이 중요하다. 가르침이 수직적 서열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질에 따라 중생도 수직적 서열이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원효 스님의 화쟁 사상은 결국 중생들을 서열화하는 ‘줄 세우기’를 부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원효스님의 글을 읽으면 곳곳에서 장자 그리고 장자의 선배라 할 수 있는 노자 사상의 영향을 발견하게 된다.

부처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좋은 말씀은 부처님 말씀이다. 불교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넉넉한 품을 가진 종교이다. 그리고 그러한 넉넉한 품을 가진 불교의 선현들은 이렇게 좋은 말씀을 부처님 말씀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해명을 잇는 우리들도 계속 좋은 말씀을 부처님 말씀으로 만들어 불교를 더욱더 빛나게 해야 할 것이다.

그 가운데 《장자》는 가장 먼저 들어 보아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책이다. 그 사상이 비록 적극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여는 힘을 주는 것에는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문명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는 날카로운 성찰을 준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가지만 하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피고, 푸른 하늘의 기운을 마는 한 가운데 뜰게 하는 책, 그것이 《장자》가 아닐까 싶다.

**빙의 퇴마사례 생생하게 전하고 그 해결방법 밝혀 !!!**

빙의에 걸리던 정신질환인 우울, 불안, 공포증, 또는 조울증, 정신분열 등 심인정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심지어 요즘엔 자살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희망이 없는 고통 속에서 슬픔하고 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명 저술 / 신국판 / 316페이지 / 13,000원

이 책은 심인정질환의 치유와 회복의 권위자인 제형스님이 그간 치유했던 사례들을 담은 책이다. ☎ 알금계좌 : 농협 552-01-047918 대한한초비보정사

**저자 직접 상담. 개인지도**

1. 최면요법, 빙의퇴마 과정 (우울, 불안, 공포증 치유 및 전생과 미래를 본다)
2. 빙의 퇴마 전문가 과정
3. 기문둔갑, 성명학 과정
4. 2명이상 지방출장 가능

예약상담 사주, 작명, 빙의퇴마, 심리상담  
**빙의(신병) 출장 퇴마합니다.**  
전화 011-772-4606  
서울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출구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범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www.yangjikukak.com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생명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종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흙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종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분  
가 루 지죽염 125g 40,000원  
나 루 지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지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지죽염 230g 78,500원  
최대용 알갱이 지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지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홍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옥외춧불대**

불경한 것을 미관이 수려한 규격품으로

- 미관이 아름답습니다.
- 청소하기가 간편합니다.
-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습니다.
- 양초판매가 증가합니다.
- 보시용으로 적합합니다.

크기	가로	세로	높이	재질
50개꽃이	90cm	60cm	150cm	스티로폼
100개꽃이	150cm	90cm	150cm	플라스틱

대초기준 ※ 위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문제작 가능

사찰시설물 제작 전문업체  
**세영금속**  
TEL 031)466-3356  
H·P 011-269-3356